

우나무노의 국가 정체성 탐색과 신비주의적 함의*

조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당대의 지식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점차 가시화되던 조국의 쇠퇴에 직면해서 스페인의 국가적 성격을 논하였다. 그들 중에서 우나무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드러진 사상가이다. 그는 절박한 실존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스페인의 문제를 바라보았다. 이렇듯 사유의 소재로서 스페인은 우나무노의 지적 형성 과정에 중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그것은 그의 일생을 통해 계속되었다. 그 출발점은 1895년에 발간된 『정통주의에 관하여』이다.

이 책에서 그는 먼저 스페인의 영원한 전통과 연관된 ‘내부의 역사’ 개념을 제시한 후, 이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탐색한다. 그중에서 그는 신비주의를 스페인의 정신으로 고려한다.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세계를 넘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이 사상이 내부 역사와 밀접히 연결된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의 일면을 이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스페인 신비주의의 요소와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방법론이 어떻게 우나무노의 국가 정체성 탐색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신비주의가 단지 스페인적인 것의 한 부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을 도출해내려는 우나무노의 사유와 긴밀히 연결됨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미겔 데 우나무노, 국가 정체성, 내부 역사, 스페인 신비주의

* 이 결과물은 2017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당대의 지식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논쟁을 벌였다. 98세대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앙헬 가니벳(Ángel Ganivet)은 1897년 『스페인의 이상 *Idearium español*』에서 스페인의 전반적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스페인적인 성격을 세네카의 스토아주의와 가톨릭 전통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그의 논의는 미서전쟁에서 패배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고 난 뒤에 집단으로 출현한 98세대의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 중에서 라미로 데 마에스투(Ramiro de Maeztu)는 1899년 발간한 『또 다른 스페인을 향하여 *Hacia otra España*』에서 마르크시즘과 니체주의의 전망에서 조국이 직면한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페인의 성격을 구했고, 아소린(Azorín)은 『카스티야의 영혼 *El alma castellana*』에서 스페인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국가의 중추를 형성했던 카스티야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들은 피오 바로하(Pío Baroja)와 함께 「3인의 선언 *El manifiesto de los tres*」을 통해 조국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국가 재건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20세기 초에 출현한 1900년대 세대(Novecentismo)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스페인의 문제를 진단했던 오르테가 이 가세트 역시 『돈키호테의 성찰 *Meditaciones del Quijote*』에서 ‘스페인은 무엇인가?’라는 외침을 던진다.

신이시여, 스페인은 무엇인가? (...) 유럽의 정신적 고향인 이 스페인, 대륙 영혼의 기수로서 이 스페인은 대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말해 다오. 분명한 한 마디, 정직한 영혼과 섬세한 정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빛나는 단 한 마디, 스페인의 운명을 비추는 한 마디를 말해다오?(Ortega y Gasset 1985, 92-93)

이렇듯 19세기 말 이후 스페인의 성격·문제·미래 등에 대해 지식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나무노의 존재는 두드러진다. 그는 누구보다도 절박한 실존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국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안개 *Niebla*』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인

물로 나타난 우나무노는 주인공 아우구스토와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가 지나치게 스페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주인공의 도전에 스페인적인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나는 스페인 사람이다.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으며 육체와 정신, 언어와 직업까지도 스페인적이다. 어느 무엇보다도 스페인적이다. 스페인주의는 나의 종교며 내가 믿기를 원하는 하늘은 천상의 영원한 스페인이다(우나무노 2005: 289).

작품 속 등장인물을 통해 주장한 바와 같이 ‘스페인적인 것’은 우나무노의 자전적인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어떤 면에서 그는 스페인과 동일시되었기에 그의 사유 체계 속에 스페인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내재하였다(Abellán, 1996: 527). 말하자면, 우나무노 사상의 소재로서 스페인은 그의 지적 형성 과정에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일생을 통해 계속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우나무노가 살라망카대학교의 그리스어 교수로 임용되어 살라망카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정통주의에 관하여 *En torno al casticismo*』라는 책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그가 1895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라 에스파냐 모데르나 *La España moderna*』라는 잡지에 게재했던 일련의 글을 모은 것으로 이 글들은 결국 ‘스페인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수렴된다.¹⁾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책은 그가 1891년 살라망카에 온 이후 카스티야의 대지와 전통에 관심을 기울였던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일견하면 이 작품은 카스티야의 형성과 그 성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스페인의 당면한 쇠퇴에 관하여 *Sobre el marasmo actual de España*」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문제를

1) 스페인의 기원과 정체성에 관한 우나무노의 탐구는 『정통주의에 관하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한 민족의 정신을 탐색하려는 그의 방법론적인 관심은 자신이 태어난 곳인 바스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박사 논문 『바스크 민족의 기원과 선사 시대의 문제에 관하여 *Sobre el problema del origen y la prehistoria de la raza vasca*』에서 이미 나타났다.

다루기에 결국 우나무노가 상징하는 카스티야는 국가로서 스페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Garrido Ardila 2004: 95).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스페인의 역사적인 형성 과정과 그 근본적인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된다(González Egido 1991: 9).

우나무노가 상징하는 국가 정체성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많이 알려진 ‘내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가 이 용어를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였기에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²⁾ 하지만 이 용어의 기원과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나무노가 내부 역사를 상징하여 스페인의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난 데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체성 형성에 풍토와 생활 방식 등에 관계된 외적인 조건과 신화, 종교, 언어, 사유방식에 관련된 내적 조건이 있다³⁾고 하지만, 우나무노는 외적이고 생리학적인 조건을 넘어 내부 역사에서 유래된 정신적인 면에서 국가의 본질적 성격이 있다고 본다(Unamuno 1991: 63).

이는 국가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 우나무노의 고유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그는 『정통주의에 관하여』에서 내부 역사를 상징한 후 그와 관련된 요소들로 언어와 문학 그리고 신비주의에 대해서 다룬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언어와 문학은 한 국가의 정체성 탐색에서 보통 언급되는 요소들이지만, 신비주의는 일반적인 정체성 논의에서 쉽게 언급되기 어려운 요소이다. 실제로 우나무노와 신비주의의 관련성, 특히 그가 산 후

2) 이 용어의 개념과 관련하여 당시 우나무노가 헤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회주의에 경도되어있었기에 헤겔이 언급한 ‘민족정신(Volksgeist)’이나 사회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하부구조와의 관련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나무노의 ‘내부 역사’와 헤겔의 ‘민족정신’과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페드로 리바스(Pedro Ribas)의 ‘헤겔의 민족정신과 우나무노의 내부 역사 *El Volksgeist de Hegel y la intrahistoria de Unamuno*」를 참조할 것.

3) 민족심리학의 영역을 개척한 라차루스(M. Lazarus)와 슈타인탈(H. Steinthal)은 어떤 집단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통의 정신을 갖게 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보다 구체화한다. 외적 조건은 공통의 기원, 주거의 인접성, 공통의 외모 즉 토양, 기후, 음식 등 인종 및 자연적인 조건과 관련된 것들이고, 내적인 조건으로는 공통의 신화, 종교, 예술, 문학, 언어가 있다(La Rubia Prado 2005: 35).

안 데 라 크루스(San Juan de la Cruz)에게 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⁴⁾ 신비주의와 그 방법론이 국가 정체성 탐색을 둘러싼 우나무노의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우나무노가 상정하는 내부 역사와 그것과 관련된 스페인적인 성격을 들춰내면서 신비주의의 요소와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방법론이 우나무노의 국가 정체성 탐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신비주의가 단지 스페인적인 것의 한 면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을 도출해내려는 우나무노의 사유와 긴밀히 연결됨을 밝히고자 한다.

II. 내부 역사와 그 발현 양상

1. 스페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우나무노의 내부 역사

역사상 로마의 지배에서 이베리아반도는 히스파니아라는 이름의 속주로 하나의 통일된 단위를 형성했고, 그 통일성은 서고트 왕국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의 침입 이후 전개된 국토회복전쟁으로 이베리아반도는 여러 지역으로 다시 분리되었다. 이슬람 세력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 수행된 국토회복전쟁이 단일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도 내 여러 기독교 왕국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카스티야 왕국이 여러 왕국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된 국가를 건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종적·종교적 다양성의 문제가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었고, 지역마다 자체의 고유 제도와 정체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

4) 우나무노와 신비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마리아 헤수스 만초(María Jesús Mancho)의 「우나무노 시가집에 나타난 산 후안 데 라 크루스의 흔적 *Presencia de San Juan de la Cruz en el 'Cancionero' unamuniano*」, 카를로스 세가데 알론소(Carlos Segade Alonso)의 「마리아 삼브라노와 우나무노의 신비주의 발견 *María Zambrano y el descubrimiento del misticismo de Unamuno*」, 최낙원의 「미겔 데 우나무노와 까스띠야 신비주의」 등을 참조할 것.

었다(조민현 2018: 7).

18세기에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에 들어오며, 각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국가 체제를 수립했으나, 이는 위로부터의 급격한 변화였을 뿐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 정체성 형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스페인에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생겨난 것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주권을 상실했을 때, 이에 대항하여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이며 이때 스페인에 대한 국가적 애국심이 생겨났다고 한다(임호준 2011: 433). 이렇게 국민적 각성이 나타났지만, 스페인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체성을 형성한 국가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자유주의와 전통주의의 대립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 나라는 여타 유럽국가보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 지체되었다. 그러는 사이 1874년에 일어난 왕정복고는 군주제와 보수적 가톨릭 전통에 기반을 둔 이전 전통으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려는 움직임과 함께 스페인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는 19세기 말의 국가적 위기에서 예기치 않게 충족되었다. 1898년에 닥친 스페인 제국의 몰락은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 민족주의 발전에 절호의 기회였으며, 국가적 수모 앞에서 스페인인들은 국민으로 단합하며 고양된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임호준 2011: 434-435). 하지만, 스페인인의 심각한 위기를 감지한 지식인들의 각성은 그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1898년 이전에 특히 가니벳과 우나무노는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스페인의 심각한 위기를 이미 의식하고 있었다(Garrido Ardila, 87).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나무노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스페인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항구적인 성격의 민족주의 담론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국가의 모습을 ‘역사적인 것(lo histórico)’, ‘내부 역사적인 것(lo intrahistórico)’, ‘영원한 것(lo eterno)’이라는 세 개의 형식으로 구분했다. 이는 각각 걸로 드러난 스페인, 그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스페인, 내부 역사 속의 스페인에서 비롯된 영원한 스페인과 관련된다(Abellán 1996: 527-528).

이때 스페인이 당면한 위기는 ‘역사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16세기 이후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스페인은 순혈정책에 기반을 둔 배타적인 종교정책

을 시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여타 유럽국가들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종교재판 등의 종교정책이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낳았고 결국 국가의 쇠퇴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카스티야를 상징하는 떡갈나무가 말라비틀어진 모습을 한 것처럼, 스페인이 몰락했다는 것이다.

종교재판은 혈통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려는 고립의 도구였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획일성에 빠지면서 여타 유럽국가처럼 다양한 학파와 사유가 풍부하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기 스페인에는 오래된 나무 덩굴과 마르고 헐벗은 대지만이 남게 되었다(Unamuno 1991: 162).

이렇게 역사 속에서 비롯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나무노는 배타적인 전통을 고집하며 닫힌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로부터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맹목적인 유럽화를 위해 전통을 폄하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정하고 영원한 전통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며 비판의 시선을 돌린다(Unamuno 1991: 56). 이러한 양비론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표면상 드러난 모습이 한 국가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보며, 당대의 화두였던 스페인의 유럽화 경우도 여타 유럽국가들과 구분되는 스페인만의 특성을 포기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른다.

편협한 전통주의자나 전통을 무시하고 유럽화를 추구하는 자들 모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던진 우나무노는 이러한 이분법적 전망을 넘어서 항구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페인의 진정한 전통과 관련된 ‘내부 역사’의 개념을 떠올렸다.

『정통주의에 관하여』 1장 ‘영원한 전통’에서 그는 “각 개인처럼 각 국가는 그 고유의 성격이 있다”(Unamuno 1991: 42)고 말하면서 이 개념을 제시한다. 역사는 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이며, 내부 역사는 그 기저에 있는 것으로, 역사와 비교할 때 훨씬 거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다 위에 있는 작은 섬의 드러난 부분을 역사에, 그 아래에 자리 잡은 광대한 부분을 내부 역사에 비유하고 바다 표면과 바닷속의 은유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역사 이면에 존재하는 내부 역사에 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소리와 태양 빛이 반사되는 거품을 가진 역사의 물결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고요한 표층만이 아니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부터 거대하게 이어지는 바다 위를 흐르고 있다. 그 심연의 바다에는 햇빛조차 도달하지 않는다. 날마다 신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 ‘역사적인 현재의 순간’의 모든 이야기는 바다의 표면, 말하자면 책과 공중문서로 얼어붙어 결정화되는 표면일 뿐이다. 일단 그렇게 딱딱한 층을 형성하며 결정화된 우리가 사는 이 보잘것없는 표면은 거대한 초점을 가진 내부 역사적인 삶보다 우월할 것이 아니다. (...) 나는 장엄한 역사의 침묵 속에 어떤 소리가 있다고 본다. 침묵 속에 남겨졌던 역사 속에서 어떤 꿈틀거림이 일어난다. 심연의 바닷속처럼 침묵 속에 이루어졌던 내부 역사적인 삶이 진보의 본질이며 진정하고 영원한 전통이다. 그것은 책, 서류뭉치, 기념물 등에 묻혀 있는 과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Unamuno 1991: 49-50).

결국, 내부 역사는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며 신문 지상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공식역사가 아니라, 그 아래에 거대하게 내재하여 있는 또 다른 역사로 본원적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우나무노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스페인의 진정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계속해서 이어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후의 논의에서 스페인의 풍토, 언어, 문학, 신비주의 등을 다루며, 그 속에 카스티야의 순수한 전통과 정신이 깃들어있다고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서 그가 말하는 내부 역사가 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면들을 탐색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 또는 참모습’이 들어있는 내부 역사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나무노가 상정하는 카스티야의 정체성 나아가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 역사가 발현되는 인문주의 전통과 신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2. 인문주의 전통과 신비주의

우나무노는 내부 역사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언어와 문학 등 인문주의 전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먼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언어는 한 민족의 경험을 담는 그릇이자 그 구성원들의 사유가 누적된 것이다. 그 은유의 깊은 주름에 (...) 지질학적 단층에 생생한 동물도감의 과정이 들어있는 것처럼 민족정신의 흔적을 남겨왔다. 예로부터 인간은 가장 경이롭고 신적인 요소가 언어에 내재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했다(Unamuno 1991: 64).

이렇게 우나무노는 한 민족의 정신과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언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나아가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의 가치를 떠올린다. 언어에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했던 민중들의 정신이 담겨있다면, 문학 속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역사의 이면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형성된 민족정신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카스티야의 영혼은 황금 세기 문학 작품에 반영된다. 그 문학에서 우리의 순수 전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전 문학임과 동시에 카스티야의 순수한 전통을 담았다. 그 문학에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사유가 계속해서 숨 쉬고 있다. 그렇게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페인 민족의 내부 역사 속에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했던 사유가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들어있다(Unamuno 1991: 71).

이러한 맥락에서 우나무노는 칼데론 데 라 바르카와 세르반테스의 문학 속에 그러한 사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그것은 자연적 조건과도 관련되는데, 겨울은 길고 혹독하며, 여름은 짧고 뜨거워서 ‘9달의 겨울(invierno)과 3달의 지옥(infierno)이라는 속담이 나왔음을 상기시키며(Unamuno 1991: 74),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로 대변되는 카스티야의 기후적 특징이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성격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돈키호테에게 보이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이상주의와 산초에 나타나는 세속

적이고 거친 현실주의가 그것인데, 이들은 함께 길을 가지만 결코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Unamuno 1991: 85).

이렇듯, 이 두 인물은 스페인의 풍토적 특성에서 비롯됐으며, 각각 이상과 현실을 추구하는 스페인인들의 성격을 형상화했다. 이는 작품 속에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이라는 대조적인 면을 드러내며,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을 혼합한 칼데론 데 라 바르카의 연극에서도 나타난다(Unamuno 1991: 92).

그런데 우나무노는 이렇게 문학 작품에 보이는 스페인적인 성격을 언급한 후 스페인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조명을 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살아남는 진정한 전통은 역사적으로 한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에서가 아니라 현재적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미래를 꿈꾸는 존재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선한 사람 알론소 키하노 영감을 소생시키기 위해 돈키호테를 죽여야만 한다고 말한다(Unamuno 1991: 144).⁵⁾ 돈키호테로 대변되는 꿈과 영광은 종말을 고하지만, 보통 사람 알론소 키하노의 열망과 가능성은 스페인인들의 가슴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되살려서 현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돈키호테의 소생이 그의 또 다른 모습인 알론소 키하노에게 달려 있으며, 기사 돈키호테로 대변되는 스페인의 역사적 순간은 사라지지만, 그 내부 역사적인 흐름은 계속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르반테스의 문학에 스페인의 내부 역사적인 사유가 들어있으며, 그것을 영원한 예술에 속하게 한다(Unamuno 1991: 47).

언어와 문학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우나무노는 신비주의를 떠올린다. 『정통주의에 관하여』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카스티야에 관한 여러 요소를 떠올린 후 마지막으로 신비주의에 대한 면을 언급한다. 카스티야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고 돈키호테의 이상주의와 산초 판사의 현실주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보려고 하는데, 그 노력은 카스티야 정신의 가장 뛰어난 열매인 순수하고 고전적인 신비주의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Unamuno 1991: 85). 말하자면 우나무노는 신비주의와 함께 카스티야 정신이 생생한 활력을 얻었다고 본다(Unamuno 1991: 119).

5) 이는 스페인이 미서전쟁의 패배로 위기에 처한 1898년에 나온 신문 기사 「선한 사람 알론소 키하노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돈키호테는 죽어 주소서! ¡Muera Don Quijote para que renazca Alonso Quijano el Bueno!」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 탐색을 위한 우나무노의 시선은 신비주의로 향한다. 언어와 문학 등 인문주의에서 찾았던 스페인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가 결국 신비주의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페인 신비주의는 어떠한 성격을 지녔으며, 어떠한 면에서 우나무노가 생각한 스페인의 정체성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자.

III. 스페인의 정신으로서 신비주의와 국가 정체성

1. 신비주의와 불멸에 대한 열망

우나무노가 제시하는 신비주의는 산 후안 데 라 크루스와 산타 테레사 데 헤수스(Santa Teresa de Jesús)로 대표되는 16세기 기독교 신비주의이다. 신비주의는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있었고 다른 종교에도 존재했는데, 우나무노는 왜 이 사상을 스페인적인 것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성격으로 여겼을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그의 사유와 그로부터 비롯된 스페인 신비주의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나무노의 사상은 이성과 신앙 사이의 갈등, 그 모순되는 요소 사이의 투쟁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그는 종교적 구원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런 만큼 그의 종교관은 정통 가톨릭과 비교할 때 거리가 있다. 이 점에 관해 카를로스 세가데 알론소는 그를 이단, 신교도적인 이단, 모더니스트, 합리적인 불가지론자, 터무니없고 모순적인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다고 말한다(Segade Alonso 2016: 92).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의 차별적인 종교관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여러 논의를 종합하면, 그의 종교관은 결국 인간의 실존적 관점에서 종교의 존재론적 의미를 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개인과 국가적 차원에서 일생을 통해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가 지속과 불멸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홀리안 마리아스는 그러한 점이 우나무노를 당대의 다른 사상가들과 차별성을 갖게 하는 점이라고 본다.

그가 “유일한 물음”이라고 불렀던 것, 즉 살아가고 죽지만 완전하게 죽기를 바라지 않는 개별적 인간의 인격적 불멸성에 자신의 모든 지적·문화적 활동을 집중했다.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학문들은 이런 물음을 건드리지조차 않았던 역사적 시기에 이에 분노한 우나무노는 이 물음을 자기 생애의 중심 테제로 삼았다(홀리안 마리아스 2016: 631-63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교에 관한 우나무노의 관심은 신에 대한 관심 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홀리안 마리아스에 의하면,

그의 출발점은 인간 자체이며, 지속과 불멸에 대한 그의 열망이다. 우나무노에게 종교성의 직접적인 토대는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것이다. 인간 자체가 우리에게 신을 요구하도록 이끈다(Marias 1997: 210).

말하자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지속과 불멸을 담보해주는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기에 신이 있기를 바라고 종교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 자신의 지속을 위한 필요성으로 신의 존재를 열망한다는 관점을 확장하면, 각 민족에게 진정한 종교는 그 민족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 된다. 이로부터 우나무노는 종교의 일반적인 교리를 따르지 않고, 개인과 민족의 실존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종교의 존재론적 의미를 구하게 된다. 『순교자, 산 마누엘 부에노 *San Manuel Bueno, mártir*』에서 “모든 종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주기에 진정하다. (...) 각 민족에게 가장 진정한 종교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종교이다”(Unamuno 1994: 46-47)라고 말하는 돈 마누엘의 종교관 역시 이러한 전망에서 생각될 수 있다.

여기서 우나무노는 종교는 그것을 만든 지역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는 것을 떠올린다. 이로부터 그는 16세기 신비주의자들의 작품을 읽는데 심취했으며, 이 사상에 스페인 민족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우루과이 작가인 알베르토 닌 프리아스(Alberto Nin Frías)에게 보낸 편지에 그러한 생각이 담겨있다.

나의 최고 관심사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각 민족의 서로 다른 특징을 필연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항상 각 개인에게 그의 존재 방식을 보존

하게 하지요. (...) 프랑스인들은 스페인인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이며 덜 감상적이에요. 그들은 더 가톨릭적이고요. 산타 테레사 또는 산 후안 데 라 크루스와 보쉬에를 비교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인들에게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지만, 어떤 신비주의자도 없습니다 (Mancho 1998: 43-44 재인용).

이렇게 여타 유럽국가와는 다른 스페인적인 성격으로 신비주의를 상정하면서 우나무노는 “카스티야 신비주의는 단일자에 대한 추상적인 사고에서 나오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창조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전제에서도 비롯되지 않았다”(Unamuno 1991: 125)고 그 성격을 말한다.

이것은 이러한 신비주의가 스페인의 역사적 맥락에서 잉태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우나무노와 많은 교감을 나누었던 앙헬 가니벳의 말에서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데, 그는 『스페인의 이상』에서 스페인 종교 정신의 가장 독창적이고 풍성한 창조는 아랍의 침입 이후 생겨났는데, 그로 인해 여타 유럽국가에서 기독교 철학이 메마르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토론으로 생동감을 상실했다면, 스페인에서는 아랍 세력과 부딪힘 속에서 항구적인 전쟁으로 변모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신비주의 문학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민중사에서 스페인 종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향들이 태어났는데, 이 신비주의는 시적인 흥분이었으며 광신이었고 고양된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Ganivet 1996: 44-45). 말하자면, 스페인에서 나타난 신비주의는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실존적 맥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우나무노 역시 신비주의 출현에 스페인적인 맥락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세속 권력이 종교의 힘을 빌려 한 사회를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을 때, 이 사상은 그러한 외적인 강제를 벗어 나려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우나무노는 신비주의의 이러한 역할을 인정하며, 내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이 사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비주의자들은 사회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분위기에서 내면적인 자유를 구했다. (...) 이러한 내면적인 자유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갖는 열망을 비우는 데서 나온다. (...) 외부의 법에 따라 억압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내면적 자유를 위한 목상을 길을 열망했다(Unamuno 1991: 126).

이렇듯 우나무노는 산 후안 데 라 크루스나 산타 테레사 데 헤수스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억압받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려는 실존적 필요성에 의해서 신비주의의 원리를 끌어냈다고 진단한다. 이 운동이 절대자에 대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생의 비극적 의미』에서 우나무노는 이를 다시 확인한다.

(산타 테레사 데 헤수스에 의하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인간상,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인성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정관을 통하여 영혼적으로 무아경에 날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신을 직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에 대한 직관인 것이다(우나무노 2018: 266).

우나무노는 프라이 루이스 데 레온(Fray Luis de León) 역시 다양한 사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스페인 제국의 배타적인 종교정책에 맞서 내면에서 우리나라 오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점은 우나무노가 왜 신비주의를 스페인적인 사유의 핵심으로 삼았는가를 설명해준다. 신비주의의 이러한 면을 생각하면서 우나무노 역시 종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면에서 우리나라 오는 실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스페인인의 진정한 모습을 종교정책 등 겉으로 드러난 데에서 찾지 않고, 그에게서 벗어나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데에서 찾게 된다.

따라서 우나무노는 완숙한 시기의 카스티야 정신은 정통 철학으로 신비주의를 선택했다고 말하며,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적 지혜로서 형언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자 덕목이며, 절대적이고 완전한 실체에 대한 열망이다. 신의 존재를 느끼려는 영적 지식에 대한 갈망이다. 우주와 인류의 이상에 도달하고, 그것과 영혼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갈망”(Unamuno 1991: 124)이라고 말한다. 결국, 신비주의가 우나무노에게 남긴 것은 카스티야 정신의 기초가 불멸과 영원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최낙원 2012: 287-288).

요약하자면 우나무노는 내부 역사에 대한 사유와 독특한 종교관을 바탕

으로 스페인의 정체성을 가톨릭 국가라는 현상적인 모습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존적 방식으로 영원성을 찾고 불멸을 구하려는 데에서 모색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나무노가 스페인의 진정한 모습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내부 역사에서 찾았다고 할 때, 그가 외적인 강제나 형식적인 도그마를 벗어나 영원성을 구하려고 지대한 노력을 했던 신비주의를 내부 역사적인 흐름에서 비롯된 스페인 정신으로 고려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신비주의의 그러한 면을 통해 우나무노는 스페인이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할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런데 우나무노가 스페인적인 것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상정한 신비주의는 이후 그가 초기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스페인의 유럽화나 국가재건운동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을 도출하는 방법론과의 관련성도 떠올리게 한다.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 상관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2. 신비주의적 방식을 통한 국가 정체성 탐색

우나무노가 스페인 정신의 일환으로 상정한 신비주의는 근대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이성과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관이다. 그것은 신과의 합일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행하기 위한 근거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 사업을 이루시고 ‘이제는 다 되었다, 끝났다.’ 하시며 어디론가 가버리신 행방불명 된 분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된다(엄두섭 1992: 5). 그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기에, 신비주의자들은 그 성령을 만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부정(negación)’의 방식이다. 이는 또한 ‘정화’ 또는 ‘자기 포기’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신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속한 감각적인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 아베얀은 산 후안 데 라 크루스의 신비주의 원리를 언급하며 이러한 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산 후안 데 라 크루스 신비주의 체계의 기본적인 사유는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하나의 주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피조물에 대한 애착과 신에 대한 애착은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영혼 속에 함께 살

수 없다. 식욕, 색욕, 욕망 등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 그렇게 욕망을 비울 때,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영혼은 자유롭게 되어 신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Abellán 1996: 251).

이렇듯 신과 합일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욕망을 버리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부정’의 원리는 우나무노가 내부 역사를 바탕으로 스페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나무노는 스페인의 정체성과 관계된 ‘영원한 스페인’을 상정하기 위해 곁으로 드러난 스페인을 벗어나서 내부 역사 속의 스페인을 떠올렸다. 그런데 ‘영원한 전통’을 추구하는 내부 역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날 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부 역사와 관련된 스페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나무노는 이와 대비되는 요소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스페인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를 부정하려고 했던 것과 연결된다.

(신비주의자들은) 모든 감각을 정지시킨 신앙의 어두운 밤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중심에서, 내면의 성에서 ‘비밀의 실체’와 우주의 생생한 법칙을 찾으면서 ‘순수한 진리’를 따르기 위해 외부 세계에 눈을 감기를 원했다(Unamuno 1991: 125).

이러한 관점은 스페인의 미래를 둘러싼 유럽화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우나무노는 초기에 주장했던 ‘스페인의 유럽화’를 부정하고 유럽적인 기준을 부정하면서 스페인의 순수하고 영원한 전통에 침잠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는 그가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유명한 말인 ‘그들이나 발명하라고 해!(¡Que inventen ellos!)’에 잘 드러나고 있다.⁶⁾

이는 그가 근대 유럽을 견인했던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적 사유보다는

6) 1912년에 발간된 『생의 비극적 의미에서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에서 우나무노는 물고기가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숨쉬기를 원해서 지느러미가 날개로 변하는 것이 실현된다면, 물고기는 물고기로서는 죽고 말 거라고 말한다(우나무노 2018: 34). 존재 그 자체로서의 지속을 바라는 우나무노의 이러한 사유는 동시에 스페인의 유럽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현 존재의 지속과 불멸이라는 실존적 고민을 우선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스페인의 유럽화를 논하며 상징적인 인물로서 데카르트를 떠올렸다면, 우나무노는 산 후안 데 라 크루스를 선택하며 유럽 문화와의 접촉에서도 결코 소멸하여서는 안 되는 스페인의 근본적인 성격으로서 신비주의를 고려하였던 것이다(Abellán 1996: 598).

IV. 결론

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영원히 이어지는 전통에서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을 찾으려는 우나무노의 사유는 오늘날 많이 언급되는 구성주의적 관점 즉 정체성이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 간의 지속적인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 변화한다”(강봉구 2010: 14)는 시각에서 보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과 유사한 비판은 오르테가 이 가세트에 의해서 이미 제기되었다. 그는 “나는 나와 나의 환경으로 되어 있다”(Ortega y Gasset 1983: 322)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때 내가 변화듯이 한 국가의 정체성 역시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874년 왕정복고에서 비롯된 거짓된 전통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을 찾는데 우나무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페인적인 본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었다. 실체로서의 국가가 비록 현상적으로 소멸의 위협에 놓일지라도, 그 본질을 이루는 정신이 남아있으면 국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내부 역사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표면에 드러난 역사보다 더 본원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조민현 2008: 156).

이러한 면에서, 우나무노는 국가를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어가게 하는 ‘어머니-대지’의 개념인 ‘마트리아(matría)’로 고려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 그 대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구히 이어지는 스페인적인 것이 살아남기 때문이다(Abellán 1996: 529).

이렇듯 그는 국가 정체성을 탐색할 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유보다는

국가의 지속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방식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나무노는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을 탐색할 때, 겉으로 드러난 역사보다는 그 안에 내재한 채 면면히 이어져 온 내부 역사에 주목했다. 이는 역사적 순간들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소멸하지만, 내부 역사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했다. 이때 신비주의는 내부 역사적 전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그 사유는 개인과 국가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룬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그는 현상적인 것을 넘어 영원과 불멸을 구하는 정신이 ‘스페인적인 것’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았기에, 그의 국가 정체성 탐색에 신비주의적 함의가 짙게 배어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봉구, 「총설」,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한울, 2010.
- 강영계, 『기독교 신비주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3.
- 남영우, 「98세대 작가들의 초기 정치 이념」, 『스페인어문학』, 40호, 2006.
- 마리아스, 홀리안,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존재에 관한 인간 사유의 역사』, 유유, 2016.
- 베어, 게르하르트, 『유럽의 신비주의』, 조원규 역, 자작, 2001.
- 엄두섭, 『신비주의자들과 그 사상』, 은성, 1992.
- 우나무노, 『생(生)의 비극적 의미』, 장선영 역, 누넨, 2018.
- _____, 『안개』, 조민현 역, 민음사, 2005.
- 임호준, 「스페인 국민국가 기획에 대한 우나무노의 사상: 이데올로기적 혼동성과 파시즘적 함의」, 『스페인어문학』, 60호, 2011.
- 조민현,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스페인에 대한 두 시각 -우나무노와 오르테가의 관점 비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9권 1집, 2008.
- _____,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민족연구』, 71호, 2018.
- 최낙원, 「미겔 데 우나무노와 까스띠야 신비주의」, 『외국문학연구』, 47호, 2012.
- Abellán, José Luis, *Historia del pensamiento español: de Séneca a nuestros días*, Madrid: Espasa Calpe, 1996.
- Ganivet, Ángel, *Idearium español*, Madrid: Biblioteca Nueva, 1996.
- Garrido Ardila, J. A., “Los caracteres nacionales según *En torno al casticismo* de Unamuno”, *Cuadernos de la Cátedra Miguel de Unamuno*, 39, 2004.
- González Egido, Luciano, “Introducción”, *En torno al casticismo*, Madrid: Espasa Calpe, 1991.
- La Rubia Prado, Francisco, *Una encrucijada española: Ensayos críticos sobre Miguel de Unamuno y José Ortega y Gasset*, Madrid: Biblioteca Nueva, 2005.

- Mancho, María Jesús, “Presencia de San Juan de la Cruz en el Cancionero unamuniano”, *Cuadernos de la Cátedra Miguel de Unamuno*, 33, 1998.
- Marías, Julián, *Miguel de Unamuno*, Madrid: Espasa Calpe, 1997.
- Ortega y Gasset, José, *Obras completas I*, Madrid: Alianza, 1983.
- _____, *Meditaciones del Quijote*, Madrid: Espasa Calpe, 1985.
- París, Carlos, *Unamuno: Estructura de su mundo intelectual*, Barcelona: Anthropos, 1989.
- Ribas, Pedro, “El Volksgeist de Hegel y la intrahistoria de Unamuno”, *Cuadernos de la Cátedra Miguel de Unamuno*, Vol. 21, 1971.
- Segade Alonso, Carlos, “María Zambrano y el descubrimiento del misticismo de Unamuno”, *Aurora*, 17, 2016.
- Unamuno, Miguel de, *Mi religión y otros ensayos breves*, Madrid: Espasa Calpe, 1978.
- _____, *En torno al casticismo*, Madrid: Espasa Calpe, 1991.
- _____, *San Manuel Bueno, mártir*, Madrid: Alianza, 1991.
- _____, “La falsedad de la regeneración”, *España como preocupación*, Madrid: Alianza, 1998.
- Zambrano, María, *Unamuno*, Barcelona: Debolsillo, 2004.

❖ ABSTRACT

Unamuno's Search for National Identity and its Mystical Implications

Cho, Minhyun
Daegu Catholic University

Betwee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Spanish intellectuals expressed various opinions and debated about 'what Spain is'. They discussed Spain's national character in the face of the gradual decline of the country. Unamuno was one of the prominent thinkers on this subject. He adopted a desperate existential problematic as the starting point through which to examine the problems of Spain. Thus, Spain as a material became a central issue i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Unamuno, which continued throughout his literary career. Its starting point was in *On Casticism*, which was published in 1895.

In this collection of essays, he first presents the concept of *intrahistory* associated with Spain's eternal tradition, then explores various elements related to this concept. Among them, he deals with mysticism as a fundamental constituent of the Spanish spirit. This idea, which pursues the absolute and eternal beyond the visible variable world, is responsible for an axis of national identity that is closely linked with the notion of *intrahistory* presented by Unamuno.

Thus, this study will examine what the Spanish mysticism and the methodology pursued by the mystics mean in relation to the national identity presented by Unamuno. In doing so, we aim to show that mysticism not only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Spanish character, but is also closely connected with Unamuno's ideas on Spain's national identity.

412 비교문화연구 제56집(2019.9)

Key Words : Miguel de Unamuno, national identity, intrahistory, Spanish
mysticism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